



安君濬 韓國해라이트(株) 社長/本會 非常勤理事

## 새로운 挑戰과 位相의 定立

'90년대를 여는 庚午年의 希望 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는 모든 企業이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한 해를 보냈으리라 생각되며, 금년 한 해 우리 經濟를 바라보는 마음이 결코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새해의 經濟事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經濟危機」라는 單語를 자주 接해야 하는 우리 現實과 많은 資料들이 이를 잘 證明해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持續되어온 高度成長의 基盤과 自信감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바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각오와 自信感으로 설레임이 함께 하는 新年이기도 합니다.

모처럼의 黑字基盤이 채 다져지기도 전에 内部的으로 닦친 過度한 賃金引上和 勞使紛糾의 結果, 나타나고 있는 生産性 低下 등과 함께 外部的으로는 원貨切上和 通商壓力이라는 숨쉴 겨를도 없는 많은 難關을 겪으면서 輸出鈍化和 景氣沈滯라는 어려운 局面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꾸고 꿈꾸어 오던 先進祖國에 대한 열망과 잘 살아 보겠다던 國民的 指標가 이제 겨우 國民所得 4千弗 線에서 挫折되거나 머물 수는 없으며, 21世紀를 向한 새롭고 힘찬 挑戰과 跳躍으로 이어지는 새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벗어난 軌道를 바로잡는데 總力을 기울여 새해에는 國內産業을 主導하는 우리 電子業界가 더욱 튼튼해지고 強해지는 기틀이 마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急變하는 産業環境의 變化는 새로운 競爭條件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에 對處하기 위해서는 國際競爭에서 優位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位相을 定立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今年에 本人이 經營하고 있는 會社는 새로운 敷地에 新規 生産設備 및 自動化에 現 保有資産 規模以上을 投資하여 新製品 및 高附加價值 製品은 물론 보다 競爭力 있는 製品生産에 모든 努力과 精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물론 많은 資金과 어려움이 豫想되고 있으나 이것만이 國際優位를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우리 社會는 民主主義의 伸張과 함께 우리는 많은 主義와 主張을 들어왔고 무엇이 옳은지? 진정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스스로 깨달아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最近 우리는 내 몫을 찾는데 너무 많은 精力과 時間을 消費했었고 내 목소리만 높이면 된다는 風潮가 곳곳에서 漫然되어왔을 뿐 제 몫을 行하는 데는 게을리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지내온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妥協과 調停 그리고 自重의 必要性이 認識되고 있으며, 價値觀의 變動과 混亂에서 다스림 人間性과 價値觀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國民的 指標를 찾아내어 多元化된 社會에서 各者의 主張이 合鳴이 되어 全國에 메아리 치는 알찬 年末을 期待해 봅니다.

